Ⅲ 신사업 방향 및 제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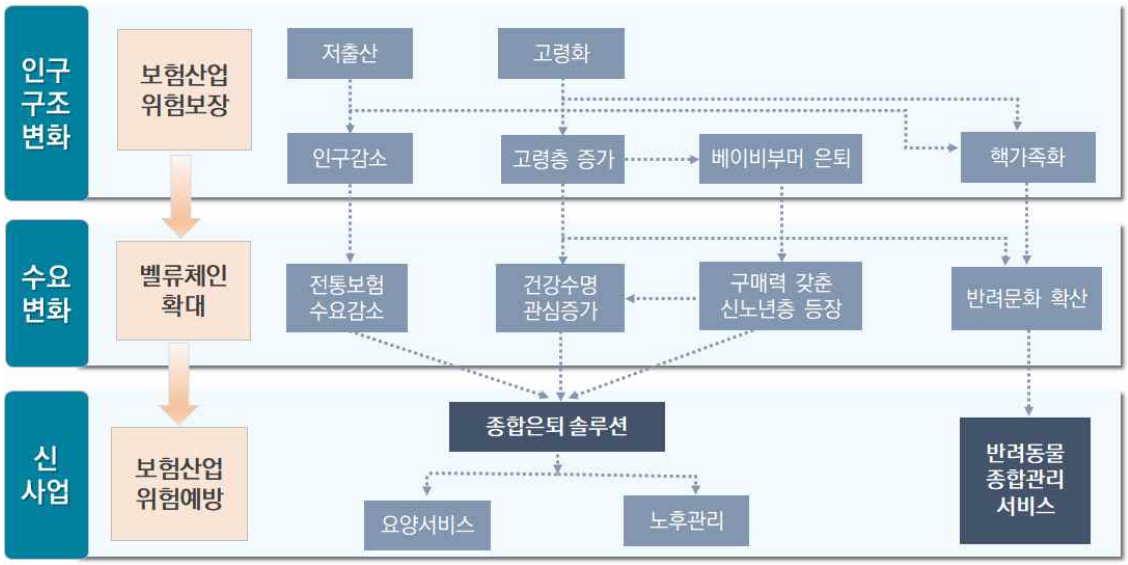
1. 신사업 방향

○ 최근 금융위원회는 산업 간 빅블러(Big Blur)화 진행 및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따라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를 통해 보험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개방함[3)]

- 금산분리 제도 중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를 확대·개선하여 금융-비금융의 융합을 촉진하고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함

○ 보험회사는 부수업무 및 자회사 형태의 신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신노년층 등장에 따른 새로운 수요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

〈그림 Ⅲ-1〉 보험산업 신사업 전략



3)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(2022. 11. 15), "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·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."

○ 향후 10년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80~90세에 진입하여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검토가 요구됨

- 신노년층은 공적연금 수급자로 경제력을 가지며 도시 거주 및 단독 공간을 선호하는 등 현재의 표준화된 서비스 이상을 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므로, 이에 대응한 요양서비스 공급 전략을 모색함
- 일본의 유료노인홈처럼 건강할 때 입소해 등급판정을 받고도 동일시설에서 계속 거주하며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
  -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1~2등급만 입소가 가능하고, 요양등급이 낮은 경우 주간에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동거 가족이 없는 경우 야간의 돌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 있음
- 보험회사의 설계사 조직 및 교육 경험을 토대로 통합재가 방문서비스 공급을 고려할 수 있음
  - 요양보호사의 방문서비스는 주로 주간 시간대에 제공되고 있고, 야간 요양서비스의 경우 시설에 머물러 있는 수급자에게만 제공되고 있어, 특히 재가 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

○ 은퇴 이후에 발생하는 주요 이벤트에 따른 고령자의 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은퇴 솔루션서비스를 개발·제공할 필요가 있음

- 중산층 고령자를 자산관리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하여 연금보험 수급기간의 안정적인 소득관리 및 자가주택의 유동화 수요에 대응한 연금 및 종합재산 신탁을 중심으로 하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함
- 고령자의 상속·증여와 같은 부의 이전, 후견 기능, 생활자금 소득화 등으로 고령사회가 가진 장수위험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종합재산신탁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
- 또한 거동이 불편할 경우를 대비한 요양서비스 파이낸싱 및 치매신탁, 사후 자산관리를 위한 상속 관련 신탁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이를 자산관리서비스와 함께 제공함
- 종합은퇴 솔루션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을 위해 '실버 전문 금융상품회사'와 같은 고령층 특화 금융상품 전문회사의 자회사 설립을 검토함

〈그림 Ⅲ-2〉 은퇴 이후 주요 이벤트

○ 반려동물 종합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동 서비스의 펫 보험 연계 시너지가 큰 만큼, 이를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업무로 검토해 볼 수 있음

- 반려동물과 펫 보험 확산으로 반려동물 헬스케어, 반려동물 운송, 반려동물 장묘 등 반려동물 관련 종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
  - 펫 푸드, 펫 헬스케어, 펫 모빌리티(펫 택시 운영 등), 펫 로스(펫 전용 화장시설, 봉안시설 등), 펫 에듀케이션(펫 행동교정, 펫 재활 등), 펫 돌봄(펫 산책, 놀아주기, 여행 중 돌봄서비스 등)이 그 예시임
- 반려동물 종합관리서비스는 펫 보험과 연계하여 제공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
  - 펫 보험을 운영하면서 반려동물 생애주기 전체의 의료·건강 데이터를 확보, 이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비금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시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음

2. 제언

○ 보험회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맞추어 신사업 전략을 추진하되, 고객 정보·자금·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신규 사업경쟁력을 장기적 전략하에 강화해야 함

- 전통적인 위험보장의 보험산업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험예방으로 전환은 지속적인 고객소통을 통해 고객정보 및 자금의 접점을 확대하여 신노년층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제시함
- 특히 한국 경제성장을 주도한 베이비부머의 본격적 은퇴는 경제력을 갖춘 신노년층의 등장과 이에 따른 새로운 보험수요의 확대를 의미함

○ 정부는 요양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체계 다변화, 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재설계, 민간과 공공 역할의 조화 등을 통해 규제와 시장의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해야 함

- 2035년 고령 돌봄수요는 현재 대비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직적인 공급규제로 인해 민간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임